

줄 타고 하늘 나는 흥길동, 마당놀이로 만난다

국립극장 대표작 '흥길동이 온다', 내달 8-11일 ACC

고전 소설 속 흥길동이 줄을 타고 하늘을 나는 K-하이어로 변신해 광주 관객들을 찾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서 국립극장 마당놀이 '흥길동이 온다'를 선보인다. 국립극장에서 2025년 제작한 이 작품은 극단 미추의 '흥길동전'을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해 새롭게 단장한 공연이다. 누적 관객 2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며 국립극장의 대표 인기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고전 서사의 틀 위에 동시대 사회 현실을 비추는 장면들이 더해져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국립극장 마당극 '흥길동이 온다'

(ACC재단 제공)

서자로 태어난 설움부터 활빈당 수장으로 성장하는 흥길동의 이야기가 풍자와 액션으로 펼쳐진다.

1부에서는 호형호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며 집을 뛰쳐나온 흥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판을 연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유튜브나 까페뉴스 등 현대 미디어와 연결해 정치와 언론을 풍자하는 내용도 다룬다.

재치 있는 대사와 해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화려한 무대 연출도 기대를 모은다.

고전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 무술을 활용한 아크로바틱과 케이팝 안무를 결합해 한국형 히어로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50여명의 출연진이 펼치는 노래와 연기, 볼리스크에이트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된다.

재치 있는 대사·화려한 연출 액션 마당극
전통 무술·아크로바틱·케이팝 안무 결합
전통 연희의 현대적 변주 관객에 활기 전해

국악 관현악과 타악 연주 위에 관객의 추임새와 폐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극장 안을 마치 광장과 같은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8m 높이에 설치된 매달기 장치를 활용해 배우들이 약 5m 상공을 가로지르는 공중 활공 장면은 이번 공연의 압권으로 꼽힌다.

또한 청년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 등 동시대의 고민을 마당놀이 특유의 날카로운 풍자로 풀어내 관객들이 함께 공

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국내 최고의 제작 역량을 갖춘 국립 기관들과 협력한 명품 공연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마당놀이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가 우리 지역 관객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국립중앙극장,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ACC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전통 공연을 지역 곳곳에 전파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 일정은 ▲4월 8일 오후 3시 ▲4월 9일 오후 7시 30분 ▲4월 10일 오후 7시 30분 ▲4월 11일 오후 3시이며, 관람권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학 연구단체 지원사업 공모

한국학호남진흥원, 오는 27일까지 접수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이 호남권 인문학·호남학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2026 '호남한국학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인문학과 호남학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단체의 강좌와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공모를 통해 호남문화콘텐츠연구회 등 7개 단체의 강좌와 보성문화원 등 6개 단체의 학술대회를 선정해 총 7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강좌와 학술대회 각각 최대 7개 단체를 선정해 총 5천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지난해와 같이 진흥원의 전략사업인 호남의 부정·원림과 향약·동계 등 공동체 문화, 호남의 인물·정신·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강좌는 호남한국학과 관련된 유·무형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자유 주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영기 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원 규모가 줄었지만, 호남권 인문학 및 호남학 연구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강좌와 학술대회를 통해 시·도민과의 소통과 공유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51강〉 12. 천지비(天地否) 上

역경의 열 두 번째 괘는 천지비(天地否)이다. '이제 태괘(泰卦)의 좋은 시절이 다 가고 만사가 막히는 때이니 비괘(否卦)'라 했다.

천지비(天地否)	지천태(地天泰)
대왕소래(大往小來)	소왕대래(小往大來)

'비(否)'는 '막히다.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입구 위에 아니부(不)가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 말하기 어렵다, 말이 아니다, 입을 막는다, 입에 뚜껑을 덮는다, 입이 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괘는 앞의 태괘와 정반대이고 태괘의 하괘를 상괘로 올리면, 즉 역위생괘(易位生卦)하면 비괘가 된다.

천지비(天地否)	否, 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	卦象
	否, 先否後喜	天地不交之課
	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	月藏露凝之象
	有命, 无咎, 畴離祉	人口不圓之象
	包羞	寒露待春之意
	包承, 小人吉, 大人否, 亨	
	拔茅茹, 以其同, 吉, 亨	

천지비(否)는 상괘의 하늘과 하괘의 땅이 제자리를 찾았으나, 하늘은 위로 오르려고만 하고 땅은 아래로 내려오려고만 하니 서로 교류와 순환이 안돼 막혀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히고 통하지 않은 때이다.

비괘와 태괘는 소장(消長)과 통색(通塞)의 양극면이고 표리(表裏)와 빈주(賓主)의 양면이다. 빈주법(賓主法)으로 보면 내 쪽에서는 비괘이나 상대 쪽에서 보면 태괘이고, 내 쪽에서 태괘이면 상대 쪽에서는 비괘가 되니 태의 때가 다하면 비로 돌아가고, 비의 때가 끝나면 태로 돌아오니 양괘는 소장의 순환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역경 육십사괘에서 이처럼 완전히 상대적으로 돼있는 괘는 태(泰)와 비(否), 기제(既濟)와 미제(未濟) 두 쌍이 있다. 건위천과 곤위지는 표리 관계이지만 빈주의 관계는 아니고 수뢰둔과 산수몽 역시 빈주의 관계는 되지만 표리의 관계는 아니다. 오직 태와 비, 기제와 미제만이 표리 빈주의 관계가 되는 것은 삼양삼음괘이기 때문인데, 태와 비는 순수 삼양삼음이고 기제와 미제는 교차해서 삼양삼음괘가 된다.

태괘 다음에 비괘를 배치한 이유에 대해 서괘전에서는 '태(泰)라는 것은 통하는 것이니 사물이 종국에는 통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비괘로 이어 받는다'고 해 '태자통야 물불가이종통 고 수지비비'(泰者通也 物不可以終通)

故 受之以否)라 했다. 즉, 형통하면 반드시 막히는 때가 오는 것이니 이때가 바로 비괘의 시기인 것이다.

비괘의 상을 보면 외형은 건괘 삼양으로 견실 화려하지만, 속은 곤괘 삼음으로 허약 부실하다. 아래의 음들이 차츰 자라나 위의 양들이 몰라나니 이를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상해(傷害)를 당한다. 예컨대 뿌리는 유약하고 잎과 줄기가 무성한 식물이거나 자녀는 나약하고 부모가 건실한 가정이다. 상괘의 양들은 외부적으로 들어 나타나기를 좋아하지만 아래 음들은 포용하고 감쌀 줄 몰라 서로 소통과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비괘라 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지 않아 천지불교지과(天地不交之課)요, 달이 안개 속으로 숨어 들어간 월장무리지상(月藏霧裏之象)이며, 사람의 입이 동굴지 못한 인구불원지상(人口不圓之象)이고 찬 겨울의 꾀꼬리가 봄의 안테로운 시기를 기다리는 한앵대춘지의(寒鶯待春之意)의 뜻을 품고 있다.

천지비괘(否卦)〈☷(상)☵(하)〉는 상(상)과 하(하)가 서로 사귀지 않음이다. 군자는 덕을 갖추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환란을 피하고 불복을 영화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天地不交否 君子以 儉德避難 不可榮以祿). 차폐를 두는 자는 위 삼효는 군자지도가 되길 하고, 아래 삼효는 소인지도가 돼 흉대(得此卦者 上三爻爲君子之道凶, 下三爻爲小人之道凶). 비괘는 건곤삼세로 괘는 칠월에 속한다(乾宮三世 卦屬七月). 남갑(納甲)은 乙未, 乙巳, 乙卯, 壬午, 壬申, 壬戌이다. 차용(借用)은 癸未, 癸巳, 癸卯, 甲午, 甲申, 甲戌이다. 만약 칠월 및 남갑에 생환하는 공명부귀인이다(養生於七月及納甲者 功名富貴人也)의 괘사는 '비지비인 불리군자정, 대왕소래(否之匪人 不利君子貞 大往小來)'이다. 즉 '일이 막혀있는 형국으로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밝아 가는 때가 아니다. 군자가 바르게 나아감에도 이롭지 못하다. 큰 것은 가고 작은 것이 온다'는 뜻이다.

비괘의 시기는 모든 일이 막혀 있으니 군자가 때를 얻지 못해 바르게 나아가도 이롭지 못하고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군자가 나아가 할 때가 아니라 때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세운 문왕(文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의 폭정으로 유리옥에 갇혀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고, 기자(箕子)〈☵(상)☱(하)〉 또는 商나라 28대 태정(太丁) 또는 文正왕의 아들로서 29대 제왕(帝乙)왕의 동생, 30대 주왕(紂王)의 숙부이다. 주왕의 폭정 아래에서 미친 척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살아났다. 주(周)의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무왕은 기자를 고조선 지역에 제후로 책봉해 기자조선 세웠다(전한다.))가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어려움을 피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화명이(地火明夷)괘와 닮았다.

“비지비인 불이군자정 대왕소래”

이를 단전(象傳)에서는 '하늘은 구름을 행해서 비를 내리게 해 만물을 윤택하게 해야 하지만, 비괘의 때에는 올라가지만 하고 땅과 교류하지 못해 만물은 고민 고뇌하고 있다(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 또한 상위에 있는 자와 하위에 있는 자가 서로 배반해 땅이 있어도 통하지 못해 나사가 없다(上下不交无邦也). 안에는 유순한 음(陰)들이 소인들로 가득차 완강히 버티고 있고 밖으로는 강건(剛健)한 양(陽)들이 군자들이었으니 소인의 도(道)가 자라나 군자의 도를 쇠약하게 해 막혀 있고 군자의 도를 발휘할 수 없다(內陰而外陽 內柔而外剛 內小人而外君子 小人道長 君子道消也)'고 말하고 있다.

소장생괘(消長生卦)					
건위선	천봉주	천산둔	천지비	풍지간	산지택

이러한 상황을 괘의 왕래(往來) 소장(消長)생괘법으로 살펴보면, 순양의 건위천괘에 소인의 침입을 당해 천풍구가 되고 천산둔, 천지비 등으로 사악한 음의 세력의 증기해 건실한 바른 양을 없애간다. 소인 세력을 얻어 군자의 힘이 없어지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상전(象傳)에서는 사람의 도가 행하지 못하는 비괘의 상황에서 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다.

무도(無道)의 때에는 올바른 도를 행하려고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가 무시돼 군자는 상처를 입고 장래에 호기(好機)가 와서 선처해야 할 썩도 잘라버리니, 군자는 자신의 덕을 쌓아 숨기고 소인의 질시(嫉視)와 박해(迫害)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높은 지위와 벼슬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도 사람들은 소인과 같은 동류라 생각하니 좋지 않다. 군자가 도를 밝아가면서 빈천(貧賤)에 있는 것은 후회할 일도 없지만, 올바른 지위가 없는 도에 있어서 부귀작록을 얻은 것도 군자가 취할 도가 아니다(天地不交否 君子以 儉德避難 不可榮以祿)'라고 말하고 있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비괘(否卦)를 얻었다면, 만사가 막힌 상황이고 마음먹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다. 옳고 바른 일조차도 사람의 압력과 방해로 통하지 않고, 만일 힘으로 돌파하고자 한다면 상처나 재앙을 만난다. 지금은 모든 일이 막혀 있고 상하반복(上下反目)의 시기에

니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신심(信心)이 두텁다면 빠르면 5, 6월, 늦으면 5, 6년 뒤에 개운(開運)하기 시작한다.

태와 비, 기제와 미제 네 개의 괘는 내괘에서는 그 때라고 보고, 외괘는 그 기운이 움직여서 반대 괘의 의미가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본다. 즉 태는 외괘로 가면 비의 기운이 보이고, 비는 외괘로 가면 비의 기운이 무너져 간다고 본다. 천지비괘는 내괘의 때를 비중(중)의 비(否)로 보고 외괘는 비중의 태(泰)로 판단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운세, 사업, 지망 등은 때가 아니니 모든 것을 자중하고 적어도 반년(6월)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혼인도 서둘러서는 안되니 기다려야 하고 잉태도 안되는 경우가 많지만 잉태했다면 절제하지 않으면 모태를 손상시킨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가솔인은 돌아오나 행색이 말이 아니며(匪人) 분실물은 시간이 지나 외괘에 이르러 찾는다. 병세는 몸의 수기(水氣)와 화기(火氣)가 서로 윤통이 안되고 막혀서 발병한 것이 대부분이고 오래 끄는 병은 위험하며 태괘(他卦)에서 비괘로 오는 경우는 병이 낫기 힘들다.

'실질'로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점을 받고 득괘해 '천지비(天地否) 불변'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비괘(否卦)는 외괘 건천 하늘이 자기 자리로 올라가려고만 하고, 내괘 곤지 땅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내려오려고만 하니 서로 등지고 교류가 되지 않아서 현재 부부는 완전히 남남으로 떨어져 있고 냉정한상태로 한지붕 아래 두가지족이 나뉘어 있다.

비괘는 막히고 통하지 않은 괘이고, 더욱이 불변괘로 괘상이 변하지 않아 어떠한 노력을 해도 부부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 두 달 별거해 분별 소용없으니 차라리 지금 헤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점단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역경(매주토,일오전)
-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